



[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재생치료제
인체투여 시작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metro

오세훈 “이태원 참사에 무한한 책임… 시스템 개선할 것”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오세훈 “재난 인프라 제대로 작동 못해 112·119 신고 통합관리 논의 착수”
시의회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이태원 참사 때 서울시의 재난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해 만사지탄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오 시장에게 이태원 사고 당일인 10월29일 112에 첫 신고가 들어온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가 발생한 10시15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냐고 시정질문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한 29일 ▲112로 오후 6시34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박유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10시까지 11건 ▲119로 오후10시15분부터 밤 12시56분까지 87건 ▲120로 오후 7시부터 55건의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도대에 왜 디지털시장을 비롯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인프라와 구조, 조직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가 112 신고 11건, 119와 120으로 들어왔던

87건과 55건의 신고와 제보를 다 받아 내지 못한 것이냐”면서 “왜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한참 뒤인 30분 후에야 보고를 받고 조직(재난안전대책본부)을 만들라고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0시30분부터 이미 현장에 급파돼 지령이 내려가 소방차가 출동하기 시작

했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112 신고나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112와 119가 통합해 기능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AI나 지능형 CCTV를 동원해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이미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냐면 상당동에 가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해 자치구에서 보고 있는 골목길 CCTV를, 현재 우리 서울시 재난상황실에서는 못 보고 있는 것을 위기 때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와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 시장님이 하는 유려한 설명으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 그건 어떻게 설명하든 사후약방문식 처방이기 때문”이라면서 “재난상황은 매년 반복돼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고자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연중무휴로 두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이런 재난 신고가 들어오는 창구인 112, 119, 120과 같은 네트워크와 붙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을 어떤 시민이 ‘아, 그렇군요. 이제라도 발견돼서 하니까 다행이군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만사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시스템 부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만사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서울시청이 (참사 발생) 3~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왜 그 모습이 안 보이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시장은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고 되받아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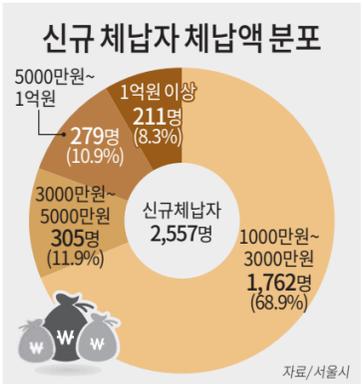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1만4739명 공개

신규 체납자 2557명, 체납액 1404억 1000만원~3000만원 체납 가장 많아

서울시는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473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이 공개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멸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



(개인 2068명, 법인 489개 업체)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04억원이다. 신규 공

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305명(11.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279명(10.9%),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뿐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 공원 음수대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

총 25곳 무작위 정밀수질검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야외 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은 자치구별로 각 1곳씩, 총 25개 야외 공원 음수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과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1항목을 포함 171개 항

목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벌였다.

수질검사 결과 25개 지점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 비소, 니켈 등의 중금속은 물론, 농약류 및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아 수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물연구원은 전했다.

시는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25개 자치구의 다중이용시설(구청·주민센터·학교 등)을 선정해 정밀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시흥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기 설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운영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영체비와 상호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의 기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충전기

72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영체비는 무상으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도 부족한 충전기를 설치하며, 이를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운영·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차충전 인프라 제공과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임청교 기자 lckda@

오늘의 날씨
11월 17일 (木)
음력 : 10월 24일
수도권 날씨 6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5, 동두천 2/16, 가평 -1/15, 파주 1/16, 서울 6/16, 양평 3/15, 인천 8/15, 수원 6/16, 용인 6/16, 평택 3/16



▲수험표 지참 고3, 김연경 경기 무료 관람 가능
▲손흥민, 카타르 입성... “잊지 못할 월드컵 만들고 싶다” /사진 뉴시스

▲AI가 추천하는 맞춤 여행... 관광공사 ‘여행콕콕’ 서비스 제공
▲왓차, 웹툰 콘텐츠 강화



▲기아차 등 13개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달성 못해
▲문화재청, 경북궁 자미당 발굴 조사 성과 공개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